

2007년 유리산업 전망

전 용 환 /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과장

지난 2006년 국내의 유리 관련 산업 대부분은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였다.

2007년 한해도 역시 유리산업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“어렵다”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다.

또한 병유리, 식기유리 시장으로 구분하여 올해의 흐름이 어떠할지 간단히 전망해보고자 한다.

먼저 용기유리 부분을 살펴보면 유리용기는 식기와 병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식기유리는 국민소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내수 경기침체와 더불어 소비둔화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, 특히 유리식기 및 주방용품의 유리는 그 감소세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다.

05년도 생산량은 약 2.9만톤 정도 이루어졌고 2006년 3분기까지의 생산량이 약 2만톤이 되지 않기 때문에 4분기까지를 고려한다 해도 2.7만톤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올 한해도 그 추세가 상승보다는 감소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을 것으로 예상된다. 그나마 그 추세가 완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최근 유리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현상이라 판단된다.

위의 추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식기유리 및 주방용품 식기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의 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으며,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식기유리생산기업은 대부분이 없어지거나 통폐합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우려의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다. 그리고 병유리 시장의 경우에는 더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다.

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주요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요약 구분해보면 내수경기침체, 그리고 대체용기의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로 구분할 수 있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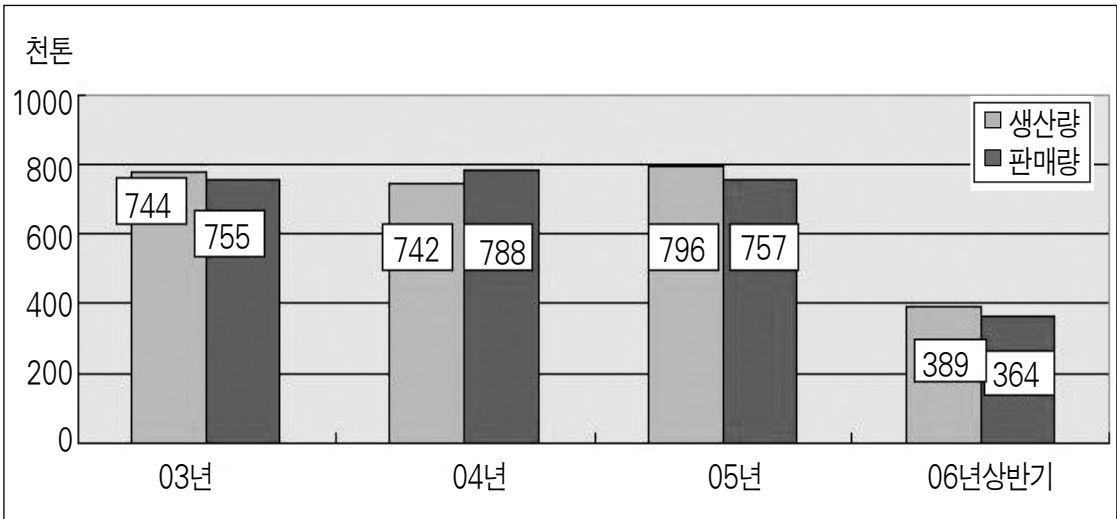
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용기 사용 기업체에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우선적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공급을 추진함과 더불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간편성,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건강과 환경보호 및 자원의 절약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병유리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.

2006년도 상반기 자료에 근거하여 세부내용을 판단해 보면 364천톤 판매량에서 주류병 약 38%, 청량음료병 약 4%, 건강영양음료병 약 35%, 식품조미료병 약 8%, 기타병이 약 15%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

[표 1] 유리시기 및 주방용품 유리 수급동향

구 분	2005년	2006년 3분기	2007년 예상
생산량	206,639	19,650	26,896
출하량	27,397	24,257	26,142

[그림1] 연도별 유리병 생산/판매량 추이



그러나 2006년 하반기부터 건강영양음료병의 소비가 약간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병의 소비도 맥주병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약 750만톤 정도에서 생산이 마감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면서 2007년 올해에는 그보다 더 감소한 720톤 정도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나 약간의 희망을 가져본다면 750톤까지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.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리산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날로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

또한 유리병이 포장재로써 사용됨에 있어 다른

재질의 포장재에 지속적으로 그 설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.

미래의 우리 후손에게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또 다른 소임이라 생각되기에 친환경적인 소재의 포장재를 사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환경호르몬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포장재인 유리병·유리제품의 소비를 통해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.

2007년 유리병 시장에 대한 낙관보다는 비관이 우세하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의 유리병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.